



선덜랜드의 지동원이 2일 열린 맨시티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홈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넣은 뒤 동료 선수들과 팬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원더풀 JJ”

지동원 93분 기적의 결승골

EPL 선두 ‘거함’ 맨시티 1-0 격침시켜
관중과 뒤엉킨 골 세리머니 ‘키스 세례’

지동원(선덜랜드)이 ‘선두’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를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에 시즌 2호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지동원은 2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2011~201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48분 결승골을 꽂아 1-0 승리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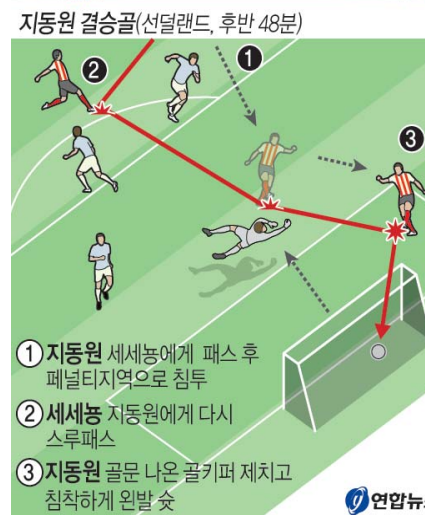
후반 32분 니클라스 벤트너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은 지동원은 후반 48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스테판 세세농의 스루패스를 이어 받아 침착하게 골키퍼까지 제치고 텅 빈 골문을 향해 리그 2호골이자 이 경기의 유일한 골을 폭발시켰다.

지동원의 골은 지난 9월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데뷔골을 터뜨린 이후 무려 114일 만이다.

선덜랜드는 지동원의 결승골에 힘입어 ‘막강 전력’ 맨시티를 1-0으로 침몰시키고 5승6무8패(승점 21)를 기록, 15위에서 13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지동원 시즌 2호 골 장면
2월 2011~201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홈경기

경기 결과
선덜랜드 1 : 0 맨체스터 시티
지동원 결승골(선덜랜드, 후반 48분)



로 두 계단 상승했다.
반면 불의의 일격을 당한 맨시티(14승3무

2패·승점45·골득실+37)는 선두 경쟁을 벌이는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14승3무2패·승점45·골득실+32)와의 간격을 벌리지 못하면서 박빙의 선두를 지켰다.

선덜랜드는 이날 맨시티를 상대로 내용 면에서 한 수 아래의 전력을 보였다.

맨시티는 60% 이상의 볼 점유율을 확보하고 26개의 슈팅을 쏟아 부으며 선덜랜드의 골문을 두드렸다. 반면 선덜랜드는 슈팅 8개에 머무르며 골려 다녔다.

그러나 이날 경기는 후반 인저리 타임에 승부가 갈렸다.

종료 30초 전 맨시티의 세르히오 아게로가 찬 마지막 슈팅이 매튜 길갈론의 발에 막혔다. 골바로 이어진 역습 상황에서 지동원은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전진하다가 페널티 지역 중앙에 있던 세세농에게 볼을 내주고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했다.

세세농이 골바로 페널티 지역 중앙으로 볼을 내주자 지동원이 재빨리 볼을 잡아 골키퍼까지 제치고 나서 골 지역 왼쪽에서 결승골을 만들었다.

후반 32분 지동원을 투입한 마틴 오닐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본 순간이었다.

관중과 뒤엉킨 지동원의 골 세리머니가 끝나자마자 주심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고, 선덜랜드는 홈에서 값진 승리를 챙겼다. /연합뉴스

“지동원 선덜랜드 영웅”

영국 언론 찬사 쏟아져

후반 인저리 타임에 결승골을 터뜨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최강 스타 군단’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를 침몰시킨 지동원(선덜랜드)에게 영국 언론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지동원은 2일 영국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0-0으로 팽팽하던 후반 48분 결승골을 꽂아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지동원이 날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동원이 경기를 끝내는 최후의 킥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선두에게 비극적인 새해를 안겼다’며 평가했다. 스카이스포츠는 이어 ‘침착하고 확실

하게 결승골을 뽑아냈다’는 설명과 함께 평점 6을 줬다.

또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은 “지동원이 날았다”고 칭찬했고, 일간지 가디언 인터넛판도 지동원의 골 세리머니 장면을 주요 사진으로 배치했다.

축구 전문 사이트 골닷컴은 지동원에 대해 팀 동료인 리 캐터몰과 함께 가장 높은 평점 8점을 매겼다.

골닷컴은 “한국의 지동원은 선덜랜드에서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영웅 자리를 얻게 됐다”고 칭찬했다.

선두 맨시티는 이날 지동원에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해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따돌릴 기회를 잃었다. 이런 의미에서 골닷컴은 지동원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

광주 FC 사진전

밝은안과 21 갤러리서

광주 FC의 창단 첫해를 추억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 FC가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 21병원과 공동으로 오는 25일까지 사진전을 연다.

서구 농성동 밝은안과 21병원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초대 캡틴 박기

동, 2011 신인왕 이승기, 올림픽 대표 김동섭·이용, 신임 주장 김은선 등 선수들의 역동적인 플레이와 골 세리머니 장면 등이 담긴 사진 20여점이 공개된다.

광주FC 관계자는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투혼을 불사랐던 모습을 팬들과 함께 감상하고 싶어 이번 사진전을 마련했다”며 “광주 FC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팬들의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굿바이 로페즈”

KIA 재계약 포기 방출



‘V10’의 주역 로페즈가 KIA 유니폼을 벗는다. KIA 타이거즈가 2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외국인 투수 로페즈의 자유계약 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KIA가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로페즈는 방출 수순을 밟게 됐다.

KIA는 지난해 11월 보류선수 명단에 로페즈를 포함 시키면서 잔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최근 고민에 빠진 KIA가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기로 하면서 로페즈는 3년간의 타이거즈 생활을 청산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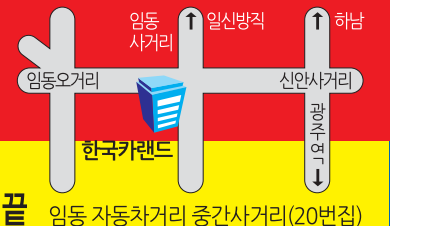
로페즈는 KIA 유니폼을 입고 한국무대에 데뷔한 2009년, 투구 삼거와 공격적인 피칭을 앞세워 14승5패(방어율 3.12)를 기록하며 팀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또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완봉승을 달성한 데 이어 7차전 깜짝 구원 등판에 나서 12년만의 ‘V10’에 일등 공신이 됐다.

2010년 4.66의 방어율로 4승10패를 수확하는 데 그쳤던 로페즈는 지난 시즌에는 토종 에이스 윤석민과 막강 원투펀치를 구성하며 KIA의 전반기 1위를 주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밀양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 List of products and services offered by the store, including car accessories, tires, and interior parts.

Advertisement for Lumar car accessories, including anti-glare windshield film and anti-rattle door seals.

Advertisement for interior car seats, highlighting quality and price reduction.

Advertisement for Hankook tires, listing various models and their features.

Advertisement for Meguiar's car care products, including wax and polish, with a price list.